

20TH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R. STRAUSS ELEKTRA

엘렉트라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OCT.
20TH 7:30PM-
21TH 3PM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합작

Elektra 엘렉트라

2023. 10. 20(금) 7:30pm - 21(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개요

작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1864~1949
대본 휴고 폰 호프만스탈
원작 휴고 폰 호프만스탈의 희곡 <엘렉트라>
초연 1909. 1. 25. 독일주립오페라
형식 1막
언어 독일어(한글 / 영문자막 제공)

주요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에반-알렉시스 크리스트
연출 플라멘 카르탈로프
조연출 베라 페트로바

출연진

엘렉트라 Sop. 릴리아 케하요바, 디아나 라마르
크리소테미스 Sop. 츠베타나 반다로프스카, 라도스티나 니콜라에바
클뤼템네스트라 M.Sop. 게르가나 루세코바, 마리야나 츠벳코바
에기스트 Ten. 다니엘 오스레트소프
오레스트 Bar. 아타나스 미라더노프, 베셀린 미하일로프
감시하는 여인 Sop. 실바나 프라브체바
오레스트의 선생 Bass 신재영
늙은 하인 Bass 박준모
젊은 하인 Ten. 김찬욱
클뤼템네스트라의 의상담당 시녀 Sop. 김정우
클뤼템네스트라의 심복 Sop. 백민아
하녀 1 Alto 루마냐 페트로바
하녀 2 M.Sop. 비올레타 라도미르스카
하녀 3 M.Sop. 알렉산드리나 스토야노바-안드리에바
하녀 4 Sop. 이나 칼리노바
하녀 5 Sop. 실비아 테네바

디오오케스트라

Information

Composer Richard Strauss
Libretto Hugo von Hofmannsthal
Original Hugo von Hofmannsthal's drama <Elektra>
Premiere 25 January 1909, Königliches Opernhaus in Dresden
Form 1 Act
Language German(Korean / English super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Conductor Evan-Alexis Christ
Director Plamen Kartaloff
Assistant Director Vera Petrova

Cast

Elektra Sop. Lilia Kehayova, Diana Lamar
Chrysothemis Sop. Tsvetana Bandalovska, Radostina Nikolaeva
Klytämnestra M.Sop. Gergana Rusekova, Mariana Zvetkova
Ägisth Ten. Daniel Ostretsov
Orest Bar. Atanas Mladenov, Veselin Mihaylov
Die Aufseherin Sop. Silvana Pravcheva
Der Pfleger des Orest Bass Shin Jaeyoung
Ein alter Diener Bass Park Junmo
Ein junger Diener Ten. Kim Chanuk
Die Schleppträgerin Sop. Kim Jungwoo
Die Vertraute Sop. Baek Minah
Erste Mägde Alto Romyana Petrova
Zweite Mägde M.Sop. Violeta Radomirska
Dritte Mägde M.Sop. Alexandrina Stoyanova-Andreeva
Vierte Mägde Sop. Ina Kalinova
Fünfte Mägde Sop. Silvia Teneva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목차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04

작곡가
Composer
06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Sofia Opera & Ballet
10

줄거리
Synopsis
12

작품 소개
Exposition of Elektra
14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19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22

출연진
Cast
26

제작진
Staff
35

대한민국 오페라 역사상 최초의 공연, 그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Chung Kabgun, Intendant of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늘 75년 한국 오페라 역사상 최초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명작 오페라 <엘렉트라>를 초연합니다. 이 뜻깊고 의미 있는 공연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엘렉트라 콤플렉스로 잘 알려진 <엘렉트라>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기반으로 호프만스탈이 오페라 <엘렉트라>로 각색하였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프로시니엄 안에서 110분간 극적 이면서도 강렬하게 펼쳐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근원적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비극적 신화의 강렬한 서사가 저마다의 운명을 짊어진 우리네 삶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것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1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과 합작으로 펼쳐지는 이 의미 있는 공연은 극장장인 연출가 플라멘 카르탈로프의 만화경 萬華鏡적 연출과 장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음악적으로 원숙해진 슈트라우스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비극의 카타르시스를 오감으로 경험케 합니다. 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준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연출, 출연, 창작, 제작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예술성이 오늘 무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출연진들의 열정과 뛰어난 예술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 celebration of the 75th anniversary of Korean opera history, Daegu Opera House is proud to present the masterpiece opera 'Elektra' by Richard Strauss for the first time today. We extend our heartfelt thanks to all the esteemed members of the audience who have joined us for this meaningful and significant performance.

The story of "Elektra," well known to us as Freud's Electra Complex in psychoanalysis, is based on the tragedy of Sophocles from the 5th century BC. Hugo von Hofmannsthal adapted it into the opera "Elektra" and for 110 intense minutes within the proscenium, it vividly portrays the human struggle against an inescapable destiny. This adaptation will po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for us in the present day as we witness the unyielding struggle of humanity. The powerful narrative of this tragic myth aims to provide solace for our individual life journeys while also inspiring us to confront them courageously.

This remarkable produc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illustrious Sofia Opera & Ballet in Bulgaria, with its venerable history spanning more than 130 years, will be brought to life under the masterful direction of maestro Plamen Kartaloff. His kaleidoscopic direction, coupled with the grandeur of the orchestral score, promises to immerse us in the catharsis of this tragic tale, as envisioned by Strauss.

We would also like to express our profound appreciation to the directors, cast, creative team, and production crew of the Sofia National Opera and Ballet for their visit to Korea to stage this extraordinary work. Their unwavering dedication and artistic prowess have made today's performance possible. We sincerely hope that the cast's passion and exceptional artistry will captivate your hearts. Once again, we extend our heartfelt thanks for joining us on this historic occasion.

20주년의 빛나는 순간을 위해 용기와 희망, 예술의 힘을 대표하는 엘렉트라를 소개합니다.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극장장 플라멘 카르탈로프
Plamen Kartaloff, General Director of Sofia Opera & Ballet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이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엘렉트라> 공연은 인내와 결연을 상징합니다. 잘알려진 고대 그리스 비극은,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며 이는 앞서 정갑균 관장의 말씀과 그 맥락을 함께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에 이 오페라를 통한 경험으로 카타르시스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2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엘렉트라>가 한국과 불가리아 간 국제 협력의 사례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술축제는 문화를 보급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예술가와 관객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과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빛나는 순간들과 문화적 풍요, 세계적 명성이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미래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It brings me great pride that the Sofia Opera & Ballet is part of the commemorative productions.

The performance of "Elektra" is a testament to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This renowned ancient Greek tragedy portrays the human struggle against destiny, echoing the sentiments expressed by Director Chung Kabgun.

Art has a unique ability to inspire hope and passion while helping us overcome life's difficulties. I hope that the complex emotions within us, often impossible to articulate through words or writing, find catharsis through the experience of opera.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with the production of "Elektra" is a source of great pride and an exam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Bulgaria and Korea. Arts festivals serve as essential platforms for spreading culture and fostering understanding among diverse communities which allows for greater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and their audiences.

As we extend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we also wish for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llaboration with Daegu Opera House and Sofia Opera & Ballet.

May the festival bring a brilliant future filled with radiant moments, cultural enrichment, and world renowned recognition.

작곡가**리하르트 슈트라우스** 1864-1949

“고전적 모더니스트, 형식의 혁신가”, 현대적이고 대담한 정신을 가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동시대인들에 의해 “새로운 음악 시대의 예언자”와 “새로운 예술의 창조자”로 극찬받았다. 이러한 영예는 16편의 오페라, 2편의 교향곡, 8개의 교향시, 2개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에 이어 200여 개의 가곡과 합창곡을 작곡한 독일 작곡가로 언급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음악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작곡가 중 하나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1863년 6월 11일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그는 4세에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으며 졸업까지 140여 작품을 썼다. 그 가운데 59개의 작품은 가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후 그의 삶에서 볼 수 있듯 그는 가곡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다. 슈트라우스는 어린시절 아버지인 프란츠 슈트라우스의 지대한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 최고의 호른주자 중 하나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고전음악 작곡가들을 깊이 존경하면서도 바그너의 음악을 멸시했다. 그와는 반대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바그너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오랫동안 바그너에 대한 존경심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 졸업 이후, 슈트라우스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바이로이트에 데려가 바그너의 파르지팔 공연을 관람하게 해준 것이다. 슈트라우스는 그 자리에서 바그너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으며,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슈트라우스는 다양한 유럽 도시에서 활동했던 지휘자 시절에는 거의 모든 바그너의 오페라를 지휘했고 그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며 세상이 바그너를 음악적으로 인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1894년, 바이마르에서 슈트라우스는 장차 그의 아내가 될 가수 폴린 드 아나를 만났다. 그녀는 슈트라우스의 가장 큰 지지자이며 그의 영감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슈트라우스는 이미 전위적인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그의 음악적 양식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대편성 오케스트라 작품을 탁월하게 작곡했을 뿐 아니라 소규모 앙상블을 위한 장르에서도 정교한 음악적 선율을 다룰 줄 알았다. 음악적 묘사라던가 세밀한 심리적 요소들을 전달하는 능력은 비교 불능일 정도였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특징은 오페라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가 작곡가로서 큰 찬사를 받은 첫 오페라는 1905년 드레스덴에서 초연한 오스카 와일드 원작의 <살로메>로 <엘렉트라>는 4년 뒤에 등장했다.

1903년 베를린 막스 라이하르트 극장에서, 슈트라우스는 작가 휴고 폰 호프만스탈의 연극 “엘렉트라” 초연을 관람했다. 슈트라우스는 이 극이 즉시 오페라 대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작가와 연락을 취했다. 이 관계는 약 20년간 이어져 총 6개의 오페라 작품을 창작하였다. 두 사람은 대본과 악보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엘렉트라>의 협업을 시작했다. 호프만스탈이 비엔나에 거주하고 슈트라우스가 베를린에 거주함에 따라 모든 소통은 우편으로 이루어졌고, 3년간의 작업 끝에 오페라 <엘렉트라>가 완성되었다.

<엘렉트라>의 초연은 1909년 1월 25일, 독일 드레스덴주립오페라에서 이루어졌고, 현대적 음악언어 사용으로 인해 관객에게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고대 그리스 신화와 소포클레스의 기원전 410년 전 작인 동명의 비극을 무대로 한 이 작품은 극도로 현대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스타일로 작곡되었다. 그는 극적인 성악과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을 창조해냈지만, 동시에 극도로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인상을 남기는 날카로운 음악적, 심리적 인물을 만들어냈다.

음악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과 미학적 측면에서 <엘렉트라>는 슈트라우스의 초기 및 후기 작품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엘렉트라>는 슈트라우스의 가장 현대적인 작품이며 조성음악의 한계를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일한 오페라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슈트라우스는 비엔나오페라의 감독이 되었다. 그 당시 슈트라우스와 호프만스탈은 예술의 아름다움과 전쟁 이후의

Composer**Richard Strauss**

작곡가

Composer



후고 폰 호프만스탈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Hugo von Hofmannsthal & Richard Strauss

슬픔을 대조시키려 했다. 감독 막스 라인하르트와 세트 디자이너 알프레드 롤러와 함께, 1920년에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명문화된 문화 포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잘츠부르크 축제 Salzburg Festival를 설립했다. 후고 폰 호프만스탈의 사망 이후, 슈트라우스는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에게 연락을 취하여 <말 없는 여인>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오페라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4회의 공연 이후 츠바이크의 유대계 집안 문제로 금지되었다. 당시에는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유대인을 확대하기 시작할 때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슈트라우스는 스위스에 강제 체류 되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 그의 친구인 가수 마리아 예리차와 그녀의 전 남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회복한 슈트라우스는 1949년 고향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예리차에게 그의 유작인 <접시꽃 Malven>을 헌정한 바 있으며, 그녀는 죽기 전까지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작품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슈트라우스는 1949년 9월 8일에 죽음에 이르렀다. 그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그를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했으며 20세기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 중 하나로 손꼽히게 했다.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 제공

A Classical Modernist, an innovator in form, modern and bold in concept, Richard Strauss was hailed by his contemporaries as the 'prophet of a new musical age' and the 'creator of a new art.' These accolades refer to the German composer who authored 16 Operas, two Symphonies, eight Symphonic Poems, two Concertos for Horn, and over 200 songs and choral works. Richard Strauss is undeniably one of the most original composers in world music history.

Richard Strauss was born in Munich on June 11, 1863. He began playing the piano at the age of four. By the time he finished school, he had already composed more than 140 works, including 59 songs – a genre in which he would subsequently attain profound mastery. These works, written during his adolescence and youth,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musical upbringing that Strauss received from his father, Franz Strauss. His father, one of Germany's finest horn players, held a deep reverence for classical composers such as Haydn, Mozart, and Beethoven, while harboring a strong dislike for Wagner. In contrast, Richard admired Wagner but kept his admiration hidden for a long time so as not to upset his father.

Upon graduating, Richard received a surprise gift – his father took him to Bayreuth to watch 'Farsifal'. It was there that Strauss met Wagner and had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conversation with him. Richard Wagner's music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composer and conductor, Richard Strauss.

During his career as a conductor, which took him to various European cities, Strauss conducted almost all of Wagner's operas, maintained contact with the composer's family, and did everything in his power to ensure that the music world rightly appreciated Richard Wagner. In 1894, in Weimar, Strauss met his future wife, the singer Pauline de Ahna. She was also the greatest admirer and supporter of the composer, as well as his inspiration.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Richard Strauss had already achieved the fame of an avant-garde composer and his style

작곡가

Composer

became recognizable to the public. Strauss wrote brilliantly for a large orchestra, but also managed to achieve an exquisite musical line in the chamber genre. He has an unsurpassed talent for describing music and a remarkable ability to convey psychological details. These qualities are especially evident in his operas. The first opera to receive great acclaim for the composer was "Salome" based on a play by Oscar Wilde and premiered in Dresden in 1905. "Elektra" will appear in just four years.

In 1903, the composer attended the premiere of the play "Elektra", adapted by Hugo von Hofmannsthal for the Max Reinhardt Theatre in Berlin. Strauss immediately realized that the drama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an opera libretto and connected with the writer. The two set the beginning of an extremely fruitful collaboration that would last 20 years and would create six operas. In their joint work on "Elektra", Strauss and Hofmannsthal achieved a perfect balance between text and score. All this happened through letters by mail, as the writer lived in Vienna and Richard Strauss – in Berlin. After three years of work, "Elektra" was completed.

The first performance was on January 25, 1909 at the Royal Opera in Dresden. "Elektra" provoked mixed reactions from the audience at the premiere with its modern musical language. Based on ancient Greek mythology and the eponymous tragedy of Sophocles from 410 BC as a libretto, the work was written by Strauss in an extremely modernist and expressionist style. The composer created a canvas for dramatic voices and a huge orchestra, but also a penetrating musical and psychological portrait, which impressed with its exceptional emotionality and expressiveness.

As musical line, orchestration and aesthetics, "Elektra" contrasts sharply with Strauss's earliest operas and his later creative period. "Elektra" is Strauss's most modern work and the only opera in which he extends the boundaries of tonality to the impossible.

After World War I, Strauss became director of the Vienna Opera. At the time, Strauss and Hofmannsthal were keen to contrast the beauty of art with the sadness of the post-war period. Together with director Max Reinhardt and set designer Alfred Roller, in 1920 they founded the Salzburg Festival, which becam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cultural forums in Europe. After the death of Hugo von Hofmannsthal, Strauss contacted the writer Stefan Zweig and began work on "The Silent Woman".

Despite the opera's success, it was banned after the fourth performance because of Zweig's Jewish origins. At that time, the National Socialists came to power and began the persecution of the Jew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a forced stay in Switzerland, Strauss experienced a severe financial crisis. With the help of the great singer and his friend Maria Jeritza and her then-husband, he managed to recover and return home in Garmisch-Partenkirchen in 1949. The composer dedicated to her his last song, "Malven", whose manuscript Jeritza kept for 33 years and did not show to anyone for the rest of her life. Richard Strauss died on September 8, 1949. His vision of the new in art made him one of the titans of composition and one of the most performed classical composers of the 20th century.

Source : Bulgaria Sofia Opera & Ballet

SOFIA OPERA AND BALLET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역사는 1890년 불가리아 출신의 음악가 3인에 의해 설립된 불가리아 최초의 오페라 단체인 소피아연극오페라단에 기인한다. 초기 공연에서는 불가리아, 체코, 이탈리아 출신의 성악가와 단체들의 참여로 12개의 오페라 및 주요 오페라를 발췌한 형태의 오페라 공연이 피아노 반주로 진행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뒀다.

1891년 5월에는 연극부서가 Tears and Laughter이라는 단체명으로 독립함에 따라 오페라부서는 불가리아 오페라의 중심이 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지원 부족으로 1892년 10월 1일 단체의 해산이 선포되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오페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살아나면서 오페라 기관 설립에 대한 준비과정이 소피아에서 이루어졌다. 1908년 페트코 나우모프(불가리아의 작곡가)의 "오페라"라는 제목의 기사는 불가리아 오페라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장기적인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Den"신문에 실린 그의 말은 예언적이었다. "비관적인 신사들이여, 자신을 가져라. 불가리아 자긍심의 원천이 될 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는 음악가들을 더욱 존경하라."

찬성의 입장에 선 지지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 Bulgaria Opera Society는 1908년 10월 18일, 구노의 <파우스트>와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로 드디어 첫 번째 공연 선보인다. Bulgaria Opera Society는 Dragomir Kazakov, Konstantin Mihailov-Stoyan, Ivan Vulpe, Dimitar Popivanov, and Stoyan Nikolov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으며 그 외에도 Zlatka Kurteva, Bogdana Gyuzelieva-Vulpe, Mara Vasileva, Olga Orlova, Doichinka Kolarova, Zhelyu Minchev, Panayot Dimitrov, Heinrich Visner, Alois Matzak, Todor Hadzhiev, Dobri Hristov, Konstantin Ramadanov가 포함되었다. 또한 같은 해 말미에 정규 합창단이 발족했다.

불가리아 소피아오페라발레극장은 1909년 6월 5일 처음으로 완전한 오페라 작품을 올리게 된다.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와 함께 고전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으며, 에마뉴엘 마놀로프의 <The Beggar Woman>, 이반 이바노프와 바츨라프 카우토스의 <Kamen and Tzena>, 게오르기 아타나소프의 <Borislav>, 디미타르 하지에오르기에프의 <Tahir Beyovitsa>와 같은 불가리아 오페라 작품이 공연되었다.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제공

In 1890, three Bulgarian musicians, Dragomir Kazakov, Ivan Slavkov, and Angel Bukoreshtliev, organized the first opera troupe in Bulgaria as a branch of the "Capital Dramatic Opera Troupe." The performances included 12 complete operas and excerpts from 11 operas, featuring Bulgarian, Czech, and Italian performers accompanied by piano, the Guards Orchestra, the Sixth Infantry Regiment Orchestra, and the Italian Singing Society choir, and they were met with unexpected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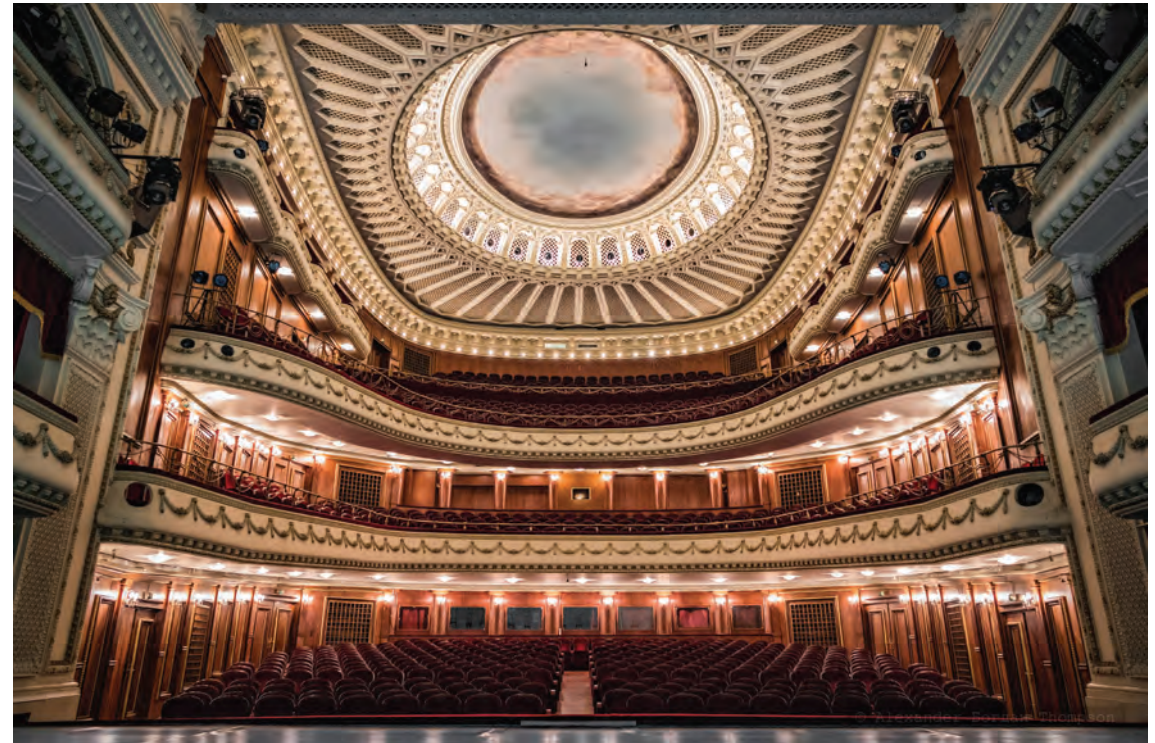
In May 1891, the dramatic division became a separate troupe called "Tears and Laughter," while the opera division became the Capital Bulgarian Opera.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a lack of state support, the troupe was disbanded on October 1, 1892, according to a decre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terest gradually revived, and the public was prepared for the establishment of opera in Sofia. An article by Petko Naumov titled "Opera" marked the beginning of a prolonged struggle both "for" and "against" Bulgarian opera. His words in the newspaper "Den" in 1908 were prophetic: "More self-confidence, gentlemen pessimists, more respect for the musical artists dedicated entirely to a cause that will be a source of pride for Bulgaria."

Finally, supporters of opera triumphed. On October 18, 1908, the "Bulgarian Opera Society" presented its first trial performance, featuring excerpts from Gounod's "Faust" and Verdi's "Il Trovatore." The "Opera Society"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the names of Dragomir Kazakov, Konstantin Mihailov-Stoyan, Ivan Vulpe, Dimitar Popivanov, and Stoyan Nikolov. In addition to them, the troupe included Zlatka Kurteva, Bogdana Gyuzelieva-Vulpe, Mara Vasileva, Olga Orlova, Doichinka Kolarova, Zhelyu Minchev, Panayot Dimitrov, conductors Heinrich Visner, Alois Matzak, Todor Hadzhiev, chorus masters Dobri Hristov and Konstantin Ramadanov. The formation of a permanent choir began at the end of 1908.

On June 5, 1909, the first complete opera production, "Pagliacci" by Leoncavallo, was presented. Alongside works from the world opera classics, the first Bulgarian opera compositions were also performed, including "The Beggar Woman" by Emanuil Manolov, "Kamen and Tzena" by Ivan Ivanov and Vaclav Kautsky, "Borislav" by Maestro Georgi Atanasov, and "Tahir Beyovitsa" by Dimitar Hadzhigeorgiev.

Source : Bulgaria Sofia Opera & Ballet



줄거리

막이 오르기 전 이야기

미케네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출정, 오랜 전쟁 끝에 승리를 거둔 뒤 트로이의 공주이자 무녀인 카산드라를 데리고 귀국한다. 하지만 왕비 클뤼템네스트라는 정부 에기스트와 결탁, 아가멤논과 카산드라를 죽인 후, 권력을 찬탈하고 자신의 남은 자식들을 내친다.

엘렉트라는 어디에 있지? “Wo bleibt Elektra?”

미케네에 위치한 아가멤논 왕궁의 안뜰, 5명의 하녀들이 물을 길면서 엘렉트라의 이상한 언동에 대해 수군거린다. 하녀들은 엘렉트라가 궁전에서 개처럼 취급 받고 있으며, 그녀 또한 권력자들을 욕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하녀들 역시 엘렉트라로부터 욕을 먹고 있기에 엘렉트라를 험담하지만 다섯 번째 하녀는 어느 정도 동정적이어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하녀들이 모두 퇴장하고 어둠이 깔리자 구석에 있던 엘렉트라가 나타나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 속에서 나오라고 호소하며 복수를 하라고 울부짖는 긴 모놀로그를 부른다.

“외톨이야! 아, 완전히 외톨이구나!” Allein! Weh, ganz allein!... Agamemnon!... – 엘렉트라의 독백

엘렉트라! “Elektra!”

이때 여동생 크리소테미스가 나타나, 간헐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언니에게 복수를 단념하라고 충고한다. 복수에 몸부림치느니 차라리 농부의 아내나 되어 아기를 낳고 살고 싶다고 한다. 마침 어머니 클뤼템네스트라가 오는 기척이 나자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친다. 클뤼템네스트라가 나타나 요즘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며 엘렉트라에게 그것을 쫓아내는 방도를 묻자, 엘렉트라는 제물로서 남자의 맛을 안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오레스트 얘기를 꺼내자 클뤼템네스트라는 오레스트가 바보였기 때문에 멀리 떠나 보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엘렉트라는 어머니가 오레스트를 두려워하는 것을 다 안다며 어머니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라고 외친다. 그때 시녀가 나타나 무언가 귓속말을 속삭이자 클뤼템네스트라는 갑자기 웃으며 궁 안으로 들어간다. 마침 크뤼소테미스가 등장,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하자 엘렉트라는 이제 우리 둘이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말에 크뤼리소테미스는 망설이다가 그만 도망쳐 버린다. 낙심한 엘렉트라는 혼자라도 복수를 해야겠다며 아버지가 살해될 때 쓰였던 도끼를 찾기 시작한다. 그 때 한 나그네가 나타나 오레스트의 죽음을 전하러 왔다고 한다. 슬픔에 잠긴 엘렉트라에게 나그네가 이름을 묻고 엘렉트라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나그네는 격앙된 어조로 사실 오레스트는 살아 있다고 말한다. 엘렉트라가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누구냐고 묻자 나그네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바로 동생임을 알게 된 엘렉트라는 "오레스트!"라고 부르짖으며 기쁨을 노래한다.

때마침 궁전 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오레스트와 그와 함께 온 그의 후견인은 클뤼템네스트라의 시녀의 도움으로 궁 안으로 들어간다. 엘렉트라가 오레스트에게 도끼를 건네주지 못했다고 걱정할 즈음 궁 안에서 클뤼템네스트라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 때 에기스트가 등장, 불을 켜라고 소리친다. 이에 엘렉트라는 문간의 횃불을 들고 달려가 즐거이 춤을 추는데, 이를 본 에기스트는 이상히 여기면서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잠시 후 창 틈으로 에기스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다가 사람 살리라는 비명과 함께 사라져 간다.

광란의 춤과 피날레

크리소테미스가 나타나 오레스트가 마침내 복수를 하였고 궁 안의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따르고 있다고 전한다. 이윽고 엘렉트라는 전력을 다해 신들린 것처럼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고 끝내 그 자리에 쓰러져 꿈쩍도 하지 않는다. 크리소테미스가 닫힌 궁전의 문 앞에서 "오레스트, 오레스트!"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글 유정우(음악평론가, 한국 바그너 협회 회장)

Synopsis

줄거리

Agamemnon, the esteemed commander of the Greek coalition during the Trojan War, triumphantly returns home after a prolonged conflict with the Trojans. In his entourage are Princess Cassandra, a renowned prophetess. However, Klytämnestra, driven by her insatiable thirst for power and in unholy alliance with her paramour Ägisth, commits the heinous acts of murdering Agamemnon and Cassandra. Subsequently, she seizes control of the kingdom, forsaking her own offspring.

“Where is Elektra?” “Wo bleibt Elektra?”

In the serene courtyard of the Mycenae palace, five maids engage in a discourse concerning the enigmatic demeanor of Elektra as they draw water. They converse about Elektra's deplorable treatment within the palace, her imprecations against the mighty, and the unsettling gossip surrounding her affronts to them. Remarkably, the fifth maid, to some extent, extends empathy toward Elektra, leading to her estrangement from her peers. As the maids withdraw and darkness envelops the surroundings, Elektra emerges from the obscurity, bemoaning the tragic loss of her father and ardently summoning his spirit from the grave while vowing vengeance.

- Elektra's monologue “Alone! Woe, entirely alone!... Agamemnon!...” “Allein! Weh, ganz allein!... Agamemnon!...”

“Elektra!”

At this juncture, her sister Chrysothemis arrives, offering counsel to Elektra, urging her to relinquish her vindictive designs, and cautioning against the perils of imprisonment. Chrysothemis expresses a longing for a tranquil life as a humble farmer's wife, as opposed to the pursuit of vengeance. Meanwhile, their mother, Klytämnestra, approaches, claiming to be tormented by tormenting nightmares. She beseeches Elektra for guidance on dispelling these haunting visions and Elektra suggests a female sacrifice. When Orest is mentioned, Klytämnestra contemptuously dismisses him as a simpleton, revealing that she sent him away. This provokes an eruption from Elektra, proclaiming her mother as the intended sacrificial offering. Simultaneously, a maid arrives, whispering confidentially, and an abrupt transformation occurs as Klytämnestra wears a malevolent smile and retreats into the palace. Chrysothemis returns and imparts the disconcerting rumor of Orest's demise. Elektra remains resolute in her resolve to exact vengeance, while Chrysothemis hesitates and ultimately flees in fear. Driven by an unwavering determination to act alone, Elektra embarks on a quest to locate the very axe that brought about her father's demise.

At that pivotal moment, an unfamiliar figure materializes to deliver the somber news of Orest's demise, casting Elektra into the depths of despair and leading her to unveil her true identity. Overcome by emotion, the stranger reveals himself as Orest, and an elated reunion ensues.

Upon their realization that there are no males within the palace, Orest and his guardian gain entry with the assistance of Klytämnestra's servant. Elektra grapples with anxiety over her inability to pass on the fateful axe to Orest. Suddenly, from the confines of the palace, Klytämnestra's anguished cries and pleas for illumination emerge. Elektra seizes a torch and engages in a gleeful, almost hypnotic dance, drawing Ägisth into the palace. Ägisth, bewildered by her erratic behavior, enters, only to be obscured moments later by the partially open door, followed by faint glimpses and the ominous cries prophesying his imminent demise.

Mad Dance and Finale

Chrysothemis returns to announce that Orest has at last exacted his revenge, and the inhabitants within the palace now pledge their allegiance and service to him. Elektra, driven to the brink of madness, embarks on a frenzied, godlike dance, ultimately succumbing to a motionless collapse. Meanwhile, Chrysothemis stands before the sealed palace doors, fervently invoking the name "Orest, Orest!" as the curtain descends.

Yoo Jeongwoo (Music Critic and President of Wagner Gesellschaft Korea)

작품 소개

I. 아르고스 왕가의 비극과 그 오페라화

미케네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 일가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처절한 비극 중 하나이다. 이 비극의 원인을 따져 보자면 그리스 연합군의 트로이 전쟁 출정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 진노한 아르테미스 여신을 달래기 위해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자신의 큰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다. 천신만고 끝에 10년 만에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가멤논은 귀국하지만 만발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원망과 아가멤논이 귀국길에 데려온 카산드라에 대한 질투까지 더해져 왕비 클뤼템네스트라는 정부 에기스트와 함께 남편 아가멤논을 암살한다. 비극의 시작이 된 아가멤논의 트로이 출병에서부터 만발 이피게네이아의 희생과 그 후의 이야기들 또한 오페라의 소재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작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과 엘렉트라와 시간적 상관 관계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가멤논 출정 전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Iphigenie en Aulide> 글루크 1774
- 원작: 에우리피데스

2. 아가멤논 사후 엘렉트라와 오레스트의 복수

<엘렉트라 Elektra> R. 슈트라우스 1909 - 원작: 소포클레스

3. 트로이 전쟁 직후 그리스군 귀환(분류와 무관한 이야기 이나 엘렉트라 등장)

<이도메네오 Idomeneo, Re di Creta> W. A. 모차르트 1781

4. 모친 살해 후 오레스트의 방랑과 누나 이피게네이아와의 재회

<타우리스의 이피게네이아 Iphigenie en Tauride> 글루크 1779
- 원작: 에우리피데스

아가멤논 왕가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인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소포클레스 모두에 의해 극으로 다루어졌다. 이중 에우리피데스의 것은 근친살해에 대한 심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이스킬로스의 위대한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중 제2부인 ‘공양 바치는 여인들’이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와 같은 소재)은 이름 그대로 오레스트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가멤논의 귀국과 죽음, 오레스트의 복수, 근친을 살해한 오레스트에 대한 신들의 심판을 가장 완전하게 다루고 있다. 아이스킬로스는 클뤼템네스트라의 복수의 모성적 당위성, 또한 어머니를 죽인 후 오레스트의 회한과 공포, 심리적 갈등과 신들의 심판 등을 놀랄 만큼 정교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엄숙하고 기교적이며 냉혹할 만큼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극중 인물들은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로비스 코린트 <엘렉트라> 대본 속표지, 1909년
Lovis Corinth, Elektra Titlepage of the Libretto, 1909

Exposition of Elektra

작품 소개

Exposition of Elektra

차갑고 강건하며 ‘정의’만을 추구하고 있어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갈등을 그리려는 작가의 체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동과 전율을 통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는 특히 감동과 전율이란 요소를 중요시하였는데, 흡사 서로 다른 정서적 상태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는 이 두 개념은 사실상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 본능적이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원초적 개념인 전율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곧 사라지고 그 감성적 측면으로서의 감동만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비범한 인물이 지닌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인간적 결함’과 노래로 불리워질 수 있을 정도의 운율을 지닌 ‘잘 선택된 언어’를 비극의 구성요소로서 제시하였다.

2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19세기에 이르러서 리하르트 바그너는 그의 악극 이론을 주창하고 실천함에 있어 이러한 그리스 비극이 지닌 본질로의 회귀를 그 귀결점으로 하고 있다. 바그너 이후 최고의 독일 오페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아 작곡한 <엘렉트라>를 통해 바그너의 악극 이론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I. 작곡과 초연

슈트라우스는 14세 때인 1878년에 처음으로 바그너의 <지크프리트>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은 바 있고, 본격적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는 공공연히 바그너의 예술적 적자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련의 표제적인 교향시들을 통해 작곡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1898년, 베를린 궁정 오페라 극장의 궁정 악장직에까지 오르게 되어 지휘자로서도 커리어의 정점에 달해 있었다. 한편 그는 19세기의 마지막 10년간에 이르게 되면서부터 그동안의 교향시라는 양식에 대해 일말의 식상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어 좀 더 종합적인 모습과 내용을 지닌 작품에 대한 창작욕이 절실해져 다시 한 번 진정한 바그너의 후계자임을 천명하며 오페라, 더 정확히는 “악극”에 천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95년에는 비로소 자신이 직접 대본까지 쓴 첫 오페라로 영웅적 악극 <군트람>을 발표하였고, 1901년에 초연된 두번째 오페라 <화재 Feuersnot>에서는 바그너 선율의 노골적인 차용을 통해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05년에 초연된 <살로메>를 통해서서는 드디어 바그너의 악극사상을 자신만의 낭만주의적 언어로 농밀하게 체화시켜내기 시작함으로써 오페라 작곡가로서도 서서히 중추적 존재가 되어갈 뿐 아니라 악극이라는 양식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케 했다.

1899년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휴고 폰 호프만스탈 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과 슈트라우스는 베를린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호프만스탈은 슈트라우스에게 자신이 극본을 쓴 발레 작품의 음악을 작곡해 줄 것을 제의했으나 슈트라우스는 당시 이미 쓰고 있던 발레곡을 핑계로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당시로서 슈트라우스는 호프만스탈에 대해 별달리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로서는 호프만스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두 번째 오페라였던 <화재>의 작곡으로도 매우 바빴기 때문이었다. 이후 1905년 <살로메>의 초연을 전후하여 두 사람의 친교에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는데 그것은 연출가 막스 라인하르트 Max Reinhardt가 지배인으로 있던 베를린의 클라이네스 테아터 Kleines Theater에서 1903년부터 올려진 호프만스탈의 연극 “엘렉트라 Elektra”를 슈트라우스가 관람하게 되면서부터였다 - 1905년에 비로소 봤다는 설도 있으나 1903~1904년 경에 보았다고도 전해진다. 사실 그가 연극 “엘렉트라”를 관극하게 된 동기는 호프만스탈 때문은 아니었고, 전작 <살로메>의 원전이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연극 “살로메”의 베를린 공연 당시 타이틀 롤을 맡았던 배우 게르트루트 아이졸트 Gertrud Eysoldt가 다시 엘렉트라로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살로메의 다음 작품으로는 희극 오페라를 작곡하고자 했던 슈트라우스는 연극 “엘렉트라”와 호프만스탈의 예술적 재능에 커다란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뛰어난 극이 오페라로서 자신이 추구하던 바를 궁극적으로 이루어 낼 것을 직감하였고 어차피 소재도 마땅치 않았던 희극의 작곡계획을 미루면서 더욱 처절한 비극에 손을 대기로 마음 먹었다. 이제는 호프만스탈과의 작업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 되어 버린 그는 살로메의 초연을 끝낸 후 바로 편지를 보내 엘렉트라 오페라화를 제안하였고 호프만스탈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연극에서보다

작품 소개

더욱 생략되고 암시적이며 강렬한 인상을 주는 대본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것이 훗날 1929년 호프만스탈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된 최고의 작곡가와 극작가의 유례 없는 콤비 플레이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1906년 6월부터 착수하게 된 작곡의 진행은 지휘자로서 슈트라우스의 잦은 연주여행 때문에 그다지 원활하지만은 않았고 작품 초중반부에 대한 두 번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1908년에 궁정악장직에 있어서 1년간의 안식년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작품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사실 전체적인 완성은 1907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슈트라우스 개인적으로는 1907년경 빈에서의 초연을 구상하고 있었던 듯하나 당시 빈 청중들의 취향으로 미루어 예상되는 빈에서의 실패를 우려한 호프만스탈이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초연은 1909년 1월 25일에 있었고 <살로메>의 초연과 더불어 그와는 인연이 깊었던 드레스덴의 작센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을 자신의 작곡생활에 있어 하나의 정점으로 여겼던 까닭에 그 때까지의 오페라들을 묶어 나흘에 걸쳐 공연하는 페스티벌 형식의 프로그램을 짰는데 1월 25일 <엘렉트라> 초연, 26일 <살로메>, 27일 <화재>, 28일 <엘렉트라> 재공연 등의 순이었다. 초연 당시의 라인 업을 보면 에른스트 폰 슈흐의 지휘에 당대 최고의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엘렉트라 역은 <화재>의 초연에도 등장하였던 소프라노 아니 크롤이 맡았는데 그녀는 리리코 스피토로서 애당초 이출데 수준의 강력한 드라마티코를 원했던 슈트라우스의 설정에는 맞지 않았으나 뛰어난 표현력으로 흡족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크리스토폴미스 역은 소프라노 마르가레테 짐스가 맡았고 이 인연으로 그녀는 이후 <장미의 기사 Der Rosenkavalier> 초연에서 마르살린 역을,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Ariadne auf Naxos>에서는 체르비네타 역을 맡게 된다. 클뤼템네스트라 역에는 관록의 대 메조 소프라노 에르네스티네 슈만-하이킹가 등장하였고, 오레스트 역은 후에 <장미의 기사> 초연에서 옥스 남작 역을 맡게 되기도 하는 바리톤 칼 페론이 맡았다. 초연 당시에는 예상대로 찬반 양론이 있었고 그 느낌은 마치 감전된 듯하다고 표현되기도 했으나 이후 주요 오페라 극장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이 되어갔다. 바그너의 후계자로서 악극 양식의 결정판을 내어 놓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한 슈트라우스는 이후의 작품에서부터는 바그너의 그늘을 벗어나서 그 영향을 자기만의 독특한 색채로 원숙하게 소화해낸 작품들을 발표하게 된다. 훗날 스트라빈스키는 “파르지팔 이후의 오페라는 <엘렉트라>와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이 두 작품뿐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III. 원전과 호프만스탈의 재해석

엘렉트라 이야기의 원류가 되는 미케네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 일가의 처절한 비극은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인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소포클레스 모두에 의해 극으로 다루어졌다. 이중 에우리피데스의 것은 근친살해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아이스킬로스의 위대한 ‘오레스테이아 3부작’ (이중 제2부인 “공양 바치는 여인들”이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와 같은 소재)은 이름 그대로 오레스트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가멤논의 귀국과 죽음, 오레스트의 복수, 근친을 살해한 오레스트에 대한 신들의 심판을 완전하게 다루고 있다. 원래 이 비극의 원인을 따져 보자면 에기스트가 아가멤논을 죽이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아가멤논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박해에 대한 복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 편, 클뤼템네스트라는 10년의 독수공방 동안에 어느새 에기스트와 정을 통하며 살다보니 뒤늦게 돌아온 남편이 귀찮은 존재이기도 했고 좀더 근본적으로는 아가멤논이 트로이 원정의 출발 당시 만딸 이피게네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원한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아가멤논이 귀국길에 데려온 카산드라에 대한 질투까지 더해져 결과적으로 클뤼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는 복수를 위해 서로를 이용, 아가멤논을 모살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아이스킬로스는 이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클뤼템네스트라의 복수심과 질투 등 인간적인 면에서 그녀 나름의 당위성, 또한 어머니를 죽인 후의 오레스트의 회한과 공포, 심리적 갈등과 신들의 (올림푸스의 신들과 복수의 여신들) 심판 등을 놀랄 만큼 정교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엄숙하고 기교적이며 냉혹하리 만큼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극중 인물들은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차갑고 강건해 앞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갈등이나 도덕률적인 심판 등을 그리려는 작가의 체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Exposition of Elektra

작품 소개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 다시 새롭게 예술의 표면에 떠올라 수세기 동안 유럽문화 전반에 걸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며 어떠한 관용화조차 이루어져 가던 그리스 비극은 나폴레옹 전쟁과 그 전후 질서의 재편, 그리고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유럽사회의 뼈저린 성찰의 귀결이자 새로운 시대에의 불안감에 대한 예술계의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했던 후기낭만주의의 정점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호프만스탈 역시 1901년부터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를 독일어판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며 근대적인 입장을 취함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말한 아이스킬로스나 에우리피데스의 그것에 비해 간명한 편인 소포클레스의 희곡에 더욱 과감한 생략을 가하여 그 분위기와 느낌 자체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한 편, 그는 1895년 지크문트 프로이트와 요제프 브로이어가 쓴 “히스테리 연구”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바 있어 거기에 나오는 안나 오 임상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잠재된 성적욕망 등에 대한 분석의 영향을 엘렉트라라는 배역의 성격에 입시켰다. 또한 프로이트가 1900년에 펴낸 <꿈의 해석>을 바탕으로 중반부 클뤼템네스트라의 등장과 꿈 얘기 부분을 엮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분석학적 대입은 인물의 인간적 측면이나 갈등을 그리기 위함은 아니었고(그렇다면 굳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배역들의 심리상태를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편집증적인 측면을 더욱 공고히 하여 오로지 작품의 주제에만 충실하기 위함이었기에 비극적 인물의 근대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철저하게 ‘정의’라는 주제를 추구하였던 소포클레스의 희곡은 바그너의 극에서 일관되고 있는 ‘의지의 힘’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독일어권 출신들이인 호프만스탈과 슈트라우스 모두의 성정에 크게 어필하였으리라 짐작된다.

IV. 악기 편성과 관현악법

1. 현악기군

제1 바이올린 8, 제2 바이올린 8, 제3 바이올린 8, 제1 비올라 6, 제2 비올라 6, 제3 비올라 6, 제1 첼로 6, 제2 첼로 6, 더블베이스 8, 하프 2 (오레스트와의 재회 장면과 피날레에서는 비올라 중 6대가 바이올린 군에 가세)

2. 목관악기군

플루트 3, 피콜로 1, 오보에 2, 잉글리쉬 혼 1, 헤켈폰 1, 클라리넷 4, E-flat 클라리넷 1, 베이스 클라리넷 1, 바셋 혼 2, 바순 3, 더블바순 1

3. 금관악기군

혼 4, 바그너 튜바 4, 트럼펫 6, 베이스 트럼펫 1, 트롬본 3, 베이스 트롬본 1, 튜바 1

4. 타악기군

팀파니 6~8 (주자 2명), 기타 각종 타악기

<엘렉트라>는 관현악의 측면에서 일찍이 슈트라우스의 장기였던 교향시의 확장형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오페라 오케스트라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이거나와 그 구성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듯한 전작 <살로메>와의 비교는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는데 각 악기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치밀한 계산을 통해 거칠고 단순하며 더욱 강력한 음향을 얻어내고 있는 <엘렉트라>의 관현악은 현과 금관이 D단조의 거친 유니즌으로 터뜨리는 서주에서부터 유려하고 관능적인 목관의 제시로 시작되는 <살로메>와는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호프만스탈이 엘렉트라를 음악으로 듣고 ‘암흑과 빛의 대조가 느껴진다’고 한 것은 유명한 얘기다.

아가멤논, 오레스트, 그리고 운명의 동기 등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선율과 화성의 전개는 매우 자유롭다. 전체적으로 반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부분부분 풍부한 현악기들을 통해 온음계적인 선율미를 부각시켜 청중들로 하여금

작품 소개

낯설고도 벅찬 감성적 동요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는데 - 대표적으로 오레스트와의 재회 부분과 피날레에서 엘렉트라와 “들리지 않느냐고요? Ob ich nicht hoere?” 부분 - 이는 의외로 티롤이나 바이에른 남부 등 알프스 지방의 민요에서 발견되는 선율적 특성 과도 유사하여 고대 에게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신적으로는 독일적인 ‘정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 작품의 정서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V. 등장인물들의 성악적 성격과 스타일

등장인물들 중 엘렉트라는 전곡을 통해 시종일관 무대 위에 등장하여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반부터 긴 모놀로그를 부르고 그 뒤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대응, 급기야 피날레에 이르러서는 10여분에 걸친 폭발적 가창과 거기에 충까지! 한 마디로 엘렉트라는 극중에서 거의 유일한 영웅적 존재인 만큼 가수에게 있어서도 초인적인 스테미너를 지닌 드라마티코의 자질이 애당초부터 요구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엘렉트라의 일인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듯하지만, 전작 <살로메>가 순전히 소프라노의 일인극을 축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달리 오레스트의 등장 전까지 작품의 전반부를 여성들의 내추럴한 가창으로 밀도를 높여 청중의 뇌리를 쥐어짜고 있는 만큼 다른 두 여성 배역인 역시 매우 중요하다. 중반부에만 등장하지만 엘렉트라와 대극적 인물로서 클뤼템네스트라는 극에 있어 또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인물(연약하지만 모성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는) 크리스테미스까지 세 명의 여성 주역들은 음역 면에서는 의외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각 배역이 요구하고 있는 음색과 성질은 완전히 다른 까닭에 이에 딱 맞게 배치한다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 엘렉트라의 성공은 캐스팅으로써 초반승부가 결정된다고까지 할 정도다.

Exposition of Elektra

글 유정우(음악평론가, 한국 바그너 협회 회장)

연출의 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는 깊고 빠르게 흘러가는 다성음악의 강과 같습니다. 무대에서의 <엘렉트라>에 대한 나의 연출적 관점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면들이 생동감 있도록 음악과 가사를 시각화하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변화무쌍한 장면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며 다양한 내적 순간들과 동적인 액션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결국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 무대에서의 첫 번째 <엘렉트라> 연출은 변화무쌍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창조하는 과정으로, 등장인물들은 동적인 순간의 연속성에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게 됩니다.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새로운 사건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장면들은 분리되어 있음에도 관객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연결함으로써 매력적인 활극 齣을 보는 듯한 영화의 편집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관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인물의 각각의 개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각각의 이야기는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세밀한 표현을 이끄는 중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슈트라우스는 주관적인 시각에서 상상을 조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연출가의 해석과 예술가들과의 조화로, 이 작품에 영원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스벤 욀케 Sven Jonke와의 협업은 바그너의 <파르지팔>과 피코프의 <야나의 아홉 형제> 연출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번 연출 역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무대와 연출을 가장 잘 선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음악에서 오는 폭발적인 힘과 극적인 효과를 통해 공연의 창조적인 이미지와 음악적 연출이 자연스럽게 탄생할 것입니다.

연출가 플라멘 카르탈로프

“Elektra” by Richard Strauss is like a polyphonic river of sound, flowing deeply and rapidly. In my view from the score for its stage life, my directorial angles are an essential visualization of the reading of music and lyrics like a kaleidoscope, in the lens of which a series of ever-changing scenes comes to life. They are exactly the right place, and the setting for a variety of episodes with inner moments and always in dynamic action. Thus, the directing of the staging of the first Bulgarian “Elektra” on the stage of the Sofia Opera is a process of constantly changing pictures, in which the characters are put to the test, as in a kind of galloping development.

The creation of a kinetic series of scenes to scene gives the energy of always new events, which are separated, but on the principle of film editing the viewer is provided with a captivating action drama, thanks only to the compactly connected changing different places of interaction and play. The point of view from the viewer’s side is to focus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haracters. Their personal drama is the factor that leads them to action in every detail of their vocalstage tasks. Strauss has given everything to sculpt the imagery from our subjective point of view, how in a personal director’s interpretation and in harmonious work with the artists, a new life can and should always be given to an eternal and ingenious work.

My work with the artist Sven Jonke is the third in a row, after our productions of “Parsifal” by Wagner and “Yana’s Nine Brothers” by Pipkov. Now again, the approach is innovative and gives me the opportunity to develop to the maximum the functionality of the set so that the vision of the musical drama is guaranteed by an action score, with its own created image of the performance, born naturally from the depth of the volcanic power and theatrical impact of the music.

Plamen Kartaloff, Director



주요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군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연출 수업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연출, 독일 칼스루에극장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 & 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145편 연출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Creative Team



지휘 에반-알렉시스 크리스트 Conductor Evan-Alexis Christ

하버드대학교 수학 및 작곡 전공,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음악대학 지휘 전공

독일 콧부스주립극장 음악 총감독 역임(2008~2018), 뷔르츠부르크 마인프랑켄극장 음악 총감독 역임(2005~2006)

2011년 독일 음악 출판사 협회상 수상

독일 브레멘필하모닉, 서독일방송교향악단, 독일 북서부필하모닉, 데사우극장오케스트라, 잉골슈타트 챔버오케스트라, 이스라엘 심포니오케스트라,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오케스트라, 남서독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오케스트라, 브레멘 필하모닉,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피아 국립 오페라, 뉘른베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외 지휘

에센알토극장, 비스바덴주립극장, 하노버주립오페라, 카셀주립극장, 본주립극장, 만하임국립극장 및 상트갈렌극장 객원 지휘

독일 임링 페스티벌에서 뮌헨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마탄의 사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박주>, <신데렐라> 및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맥베스> 지휘



주요제작진

연출 플라멘 카르탈로프 Director Plamen Kartaloff

불가리아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립음악원 오페라연출 전공, 소피아 영상아카데미 영화연출 전공
불가리아 루세오페라극장 예술감독(1982~1986), 불가리아 스테판 마케돈스키극장 예술감독(1990~1994),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극장장(1994~2000, 2008~현재)

불가리아 최초로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 <니벨룽의 반지> 전편과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 등 바그너의 대형 작품 제작

베오그라드국립극장에서 <사랑의 묘약> 최우수 연출상, 불가리아 음악가 및 무용가 협회 Crystal Lyre상, 파이시 힐렌다르스키 국가상 수상 및 키틀로스 국가 훈장 수훈

<투란도트>, <라 조콘다>, <돈 카를로>, <리골레토>, <가면 무도회>, <이고르 공>, <토스카>,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 <카발레리아 투스티카나>, <잔니 스키키>, <카르멘>, <야나의 아홉형제>, <라크메>, <도둑까지 서곡>, <돈키호테>, <황제와 목수>, <메리 튜더> 등 180개 이상의 다양한 작품 연출

<립코프의 야나의 아홉형제 - 감독의 관점> 저자
현)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극장장



조연출 베라 페트로바 Assistant Director Vera Petrova

뉴 불가리아 대학교 연출 및 예술 경영 전공

런던 코벤트 가든 인턴 감독(2007~2008)

<메리 위도우>,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세비아의 이발사>, <돈 카를로>, <투란도트>, <라 조콘다>, <이고르 공>, <클레오파트라>, <오디피우스왕> 조감독

스위스 졸로투른 페스티벌, 루마니아 엘레나 테오도리니 국제 페스티벌, 류블라나 여름 축제 등 국제 페스티벌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 무대 감독으로 활동

<신데렐라>, <마님이 된 하녀>,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피가로의 결혼>, <디도와 아이네 이아스>, <돈 조반니>, <오텔로>, <미소의 땅>, <예브게니 오네긴>, 발레 <알레코>, <니벨룽의 반지> 연출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스테판 마케돈스키국립극장, 마린스키극장, 그라츠오페라 하우스,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키프로스 라르나카성, 로마 원형극장, 트리에스테 베르디 오페라 하우스, 뤼센극장, 볼쇼이극장 등 유럽 유수 극장에서 감독 및 <니벨룽의 반지> 불가리아 초연 연출 참여

현)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부극장장



주요제작진

무대미술감독 스벤 욀케 Scenography Sven Jonke

오스트리아 비엔나응용예술아카데미, 자그레브디자인학교 건축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의 모더니즘 전통 기반 그룹 '뉴멘 / 포유즈 Numen / For Use'의 창립 멤버
2004년부터 무대미술분야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뉴멘-라이트 시리즈로 '테이프 설치'와 같은 전시작업 활동 중



Creative Team

안무가 프레디 프란주티 Choreography Fredy Franzutti

이탈리아 출신의 안무가로 레체 Lecce의 안무 단체 '발레토 델 수드 Balletto del Sud'의 설립자(1995)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로미오와 줄리엣>, <세헤라자데>, <불새> 안무로 유럽 유수극장에서 공연
모스크바볼쇼이극장, 몬테카를로오페라극장, 빌바오오페라극장, 로시니페스티벌극장 등 유럽 주요극장에서 안무창작가로 활동



의상감독 레오 쿨라시 Costumes Leo Kulash

베오그라드미술아카데미 의상 및 패션디자인 전공
하노버국립오페라극장, 함부르크탈리아극장, 린츠주립극장, 비엔나국립오페라극장, 라트비아 국립오페라극장, 모스크바볼쇼이극장 등 유명 공연장에서 세트 및 의상디자이너로 활동
슬로베니아국립극장 주최 마리보르연극시상식 및 프레세렌시상식 수상자
슈트트가르트 발레단 <Patterns>(2019), 레 그랑 발레 캐나다앙 드 몬트리올 <Aperture> (2019) 외 다수 작품 참여



주요제작진

조명감독 안드레이 하이딘야크 Artistic Lighting Andrej Hajdinjak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작품으로 슬로베니아 최고의 조명 디자이너상 수상(2004)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볼차노시립극장, 류블라나오페라극장, 마리보르SNG 국립극장, 류블라나시립극장, 슬로베니아청소년극장, 유고슬라비아극장, 류블라나무용극장, 크로아티아 국립극장, 첼레국립극장 등 작업
<토스카>, <카르멘>, <돈키호테>, <파우스트>, <호프만의 이야기>, <이고르 공>, <메데이아>, <라디오 앤 줄리엣>, <보이책> 등 200회 이상의 공연 제작
키프로스 파포스 아프로디테 페스티벌, 오사카 페스티벌, 나고야 아이치현예술극장, 도쿄 문화 회관 오페라 <라크메> 투어 공연,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 에스플러네이드극장에서 발레 <Architecture of Silence> 공연, 오스트리아 장크트펠덴, 스위스 빈터투어, 이탈리아의 볼차노 오페라 <The Nymphs of the Rhine> 공연



Creative Team

무대감독 스테프카 게오르기예바 Stage Manager Stefka Georgieva



무대감독 테오도르 게오르기예프 Stage Manager Teodor Georgiev



출연진

Cast

엘렉트라 Sop. 릴리아 케하요바 Elektra Lilia Kehayova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소속 활동기간 중 립보미르 피코프의 <아나의 아홉형제>, 차이콥스키의 <예프 게니 오네긴> 작품으로 평단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 <아이다>, <맥베스>, 바그너의 <발퀴레>,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작품 출연

불가리아 출신의 전설적 소프라노 안나 모토바 신토프로부터 <돈 조반니>의 돈나 엘비라 역에 대한 티칭과정 수료 및 <엘렉트라>역할을 위한 메조 소프라노 '돌로라 자작'의 마스터클래스 참여

불가리아 국립음악아카데미(판초 블라디게로프) 재학 중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 역할 데뷔 후 플로브디브오페라단, 벨리코타르노보음악극장 등 주역으로 출연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공연의 주-조역으로 출연 중이며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나부코> 등 작품 출연 예정



엘렉트라 Sop. 디아나 라마르 Elektra Diana Lamar

스위스 제네바 음악원 성악, 성악 페다고지 석사졸업

독일 비스바덴헤센주립극장, 소피아 국립오페라발레극장, 베를린 독일오페라극장, 라 모네 왕립극장, 부쿠레슈티국립극장, 가니자테 페스티벌, 애딘버러 페스티벌 등 우수 극장 및 페스티벌 출연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나부코>, <스페이드의 여왕>, <토스카>, <푸른 수염의 성>, <보물을 캐는 사람>, <마리아 칼라스의 일곱 가지 죽음>, <예브게니 오네긴>, <로엔그린>, <아틀란티스의 황제>, <집시 공주>, <헨젤과 그레텔>, <카르멘>, <Naïs> 등 주-조역

이탈리아 페사로 분더카머 오케스트라 초청 Tebaldi100 리사이틀 및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키프로스 등 전세계 리사이틀 출연

마리아 칼라스 찬사상(2019), 알카모 국제 성악 콩쿨 1위(2018), 프리츠거버 상(2010, 2011), 미그로스 상(2009), 라이라 재단상(2010), 스위스 그랜드 콩쿠르 황금석상(2007) 등 다수 수상 사펠 무지칼 렌드 엘리자베스 솔로리스트 활동 (2011-2015)

헬무트 도이치, 이안 보스트리치, 줄리어스 드레이크, 헬렌 도나트, 잉가 칼나, 톰 크라우스, 존 앤더슨, 루카 스칼리니, 아니타 가랑차, 올라 파시츠닉 등 저명 아티스트 마스터클래스 참가



출연진

Cast

크리소테미스 Sop. 츠베타나 반달로프스카 Chrysothemis Tsvetana Bandalovska

불가리아 국립음악아카데미 성악 전공, Michael Chekhov 재단에서 심리기술편공

보리스 크리스토프 콩쿠르(2004) 은메달 수상으로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가수로 웨일스 카디프 국제성악콩쿠르(2005),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라 아리아(2001) 참여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솔리스트로 2001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라 보엠> 미미, <투란도트> 류, <나비부인> 초초상, <파우스트> 마거리트, <돈 조반니> 돈나 엘비라, <마술피리> 파미나, <로엔그린> 엘사,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졸데 역 출연

헝가리, 터키, 스위스 외 유럽 우수 국제규모 페스티벌 참여 및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살로메 역으로 출연한 불가리아 최초의 소프라노

불가리아 문화부로부터 불가리아 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장 및 오페라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금깃털상 수상(2016)



크리소테미스 Sop. 라도스티나 니콜라에바 Chrysothemis Radostina Nikolaeva

불가리아 루세에서 <돈 조반니> 돈나 엘비라 역으로 데뷔

<라 트리비아타>, <돈 카를로스>, <아이다>, <투란도트>, <일 트로바토레>, <가면 무도회>, <오텔로>, <아틸라>, <라보엠>, <마농 레스코>, <토스카>,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안나 볼레나>, <돈 조반니>, <차르 칼로안>, <디도와 아이네이아스>, <알레코>, <이고르 공> 등 다수 작품 출연



출연진

클뤼템네스트라 M.Sop. 게르가나 루세코바 Klytämnestra Gergana Rusekova
 불가리아 국립음악아카데미에서 오페라 성악 전공(콘스탄차 바츠코바 사사)
 제프리 갈, 발레리 리프킨, 마르티나 아로요, 루치아나 딘티노, 스테프카 에브스타티에바, 피오
 렌차 코소토 마스터클래스 참여
 미국 듀케인대학 석사 및 흐리스토 브람바로프 콩쿠르(2006)의 수상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산투차 역, <토스카> 토스카 역, <아이다> 암네리스 역 출연
 스타라 자고라국립오페라단원(2015-2017)
 2017년부터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르지팔>
 쿤드리 역과 <일 트리티코> 지오르제타 및 비제 <카르멘>의 카르멘 역 출연



클뤼템네스트라 M.Sop. 마리아나 즈벳코바 Klytämnestra Mariana Zvetkova
 불가리아 판초 플라디게로프 국립음악아카데미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스칼라극장에서 <안드레아 세니에>,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출연
 뮌헨, 도쿄, 드레스덴, 리우데자네이루, 리옹 등 국제 무대에서 활동 중
 베르디, 푸치니, 슈트라우스, 바그너, 베토벤 등 다수 작품 연주
 도이체 그라모폰, 낙소스 음반사에서 실황 녹음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악과 객원 교수(2010)



Cast

출연진

에기스트 Ten. 다니엘 오스레트스프 Ägisth Daniel Ostretsov
 불가리아 국립음악아카데미 졸업(니콜라 니콜로프, 칼루디 칼루도프, 리리아나 자블렌스카 사사)
 로마 보리스 크리스토프 아카데미의 미렐라 파루토, 안토니오 보이어 사사
 <세비아의 이발사> 알마비바 백작 역으로 미국에서 데뷔했으며, <피가로의 결혼> 돈 바실리오
 역 및 <돈 조반니>의 돈 오타비오 역 등 다양한 레퍼토리 보유



오레스트 Bar. 아타나스 미라더노프 Orest Atanas Mladenov
 불가리아 판초 플라디게로프 아카데미 4학년 재학 중 <아름다운 엘렌 La belle Hélène> 작품으로
 데뷔했으며 Niko Isakov 교수의 지도아래 우등으로 졸업
 이탈리아 로마 보리스 크리스토프 불가리아 문화기관 및 이탈리아 페사로 로시니국립음악원 연수
 불가리아 스타라 자고라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알피오 역 2008 외 <호프만의
 이야기>로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 데뷔
 2008년부터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극장 솔로리스트로 활동하며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벨코레 역, <투란도트> 핑 역, 마스테 <베르테르> 알베르트 역, <라크메> 프레더릭 역, 비제 <진주
 조개잡이> 주르가 역, 로시니 <신데렐라> 단디니 역, <예프게니 오네긴> 오네긴 역, 바그너 <신들의
 황혼> 군터 역, <트리스탄과 이졸데> 쿠르베날 역 및 <파르지팔> 암포르타스 역 출연



오레스트 Bar. 베셀린 미하일로프 Orest Veselin Mihaylov
 불가리아 국립음악아카데미 성악과 석사과정 졸업(마리아 벨체바 사사)
 불가리안 탤런트 갤러리, 보리스 크리스토프 재단, 라이나 카바이반스카 재단 장학생 선발
 이탈리아 로마 산타 세실리아 아카데미 과정, 라이나 카바이반스카 마스터 클래스 수료
 <카르멘>, <진주조개잡이>, <삼손과 데릴라>, <로미오와 줄리엣>, <라 보엠>, <잔니 스키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아이다>, <이고르 공>, <예브게니 오네긴>, <보리스 고두노프> 등
 출연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불가리아 콘서트홀, 불가리아 문화센터 등 공연
 부다페스트, 블라티슬라바, 비엔나, 프라하 등 국제 무대에서 활동 중



Cast

출연진

감시하는 여인 Sop. 실바나 프라프체바 Die Aufseherin Silvana Pravcheva

불가리아 바르나음악학교 및 불가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졸업

블라고베스타 카르노바틀로바-도브레바 마스터 클래스 수료

세이빈 마르코프, 알렉산드리나 밀체바, 아나 이게라스 등 사사

<리타>, <사랑의 묘약>, <티토 황제의 자비>, <이도메네오>,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일 트로바토레>, <가면 무도회>, <라 트리비아타>, <레퀴엠>, <오텔로>, <시몬 보카네그라>, <투란도트>, <라 보엠> 등 출연

불가리아 국립 콩쿠르 및 루이스 콜먼 콩쿠르 2위

1989년부터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단원으로 활동



Cast

첫 번째 하녀 Alt. 루마냐 페트로바 Erste Mägde Romyana Petrova

불가리아 국립음악원 피아노 전공

음악극을 통해 성악을 시작했으며 1980년부터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 합류

베르디 <리골레토>, <일트로바토레>, <오텔로>,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구노 <파우스트>, 모차르트 <티토황제의 자비>, 비제 <카르멘>, 푸치니 <잔니스카키> 외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메조소프라노 역할로 출연해왔으며 콘서트, 소규모 공연, 칸타타와 오라토리오 공연



두 번째 하녀 M.Sop. 비올레타 라도미르스카 Zweite Mägde Violeta Radomirska

불가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알렉산드리나 밀체바 사사

스위스 취리히오펜스튜디오 교육생(1999-2001)으로 <살로메>, <에르나니>, <리골레토> 주-조역 출연

매년 유럽의 우수한 젊은 음악가 10명에게 수여하는 “Le Prix Européen d'encouragement”상 수상

루체른오페라단의 일원으로 <카르멘>, <마술피리>, <아르미다>, <박쥐>, <디도와 아이네아스>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 및 밀라노 RAI오케스트라의 <스타뱃마테르 Stabt Mater> 공연 참여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의 활동기간인 2019-2023년 동안 <카르멘> 카르멘 역, <아이다> 암네리스 역, <예브게니 오네긴> 올가 역할을 비롯해 소피아필하모닉, 플라벤 필하모닉, 불가리아 국립라디오오케스트라와 협연



출연진

세 번째 하녀 M.Sop. 알렉산드리나 스토야노바-안드리에바 Dritte Mägde Alexandrina Stoyanova-Andreeva

불가리아 플레벤 파나요트 피프코프 국립음악학교 바이올린 전공

불가리아 국립음악원 성악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

모스크바볼쇼이극장 <니벨룽의 반지>에서 그림게르데 역으로 데뷔, 마린스키극장 영오페라싱어 아카데미에서 <카르멘> 카르멘 역으로 출연했으며 이후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극장의 신년 갈라콘서트 출연

러시아 블라디카프카즈의 파벨 리시치안 국제 성악 콩쿠르 2위, 상트페테르부르크 엘레나 오브라츠토타 국제 청소년 오페라 성악가 대회 준결승 진출 및 특별상 수상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파르지팔> 유혹하는 여인 역 데뷔 및 <예브게니 오네긴> 라리사 여사 역 데뷔



Cast

네 번째 하녀 Sop. 이나 칼리노바 Vierte Mägde Ina Kalinova

불가리아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립 음악아카데미 졸업

라이나 카바이반스카, 안나 토모바 신토프, 다리나 타코바 마스터 클래스 수료

불가리아 부르가스 오페라 극장에서 <코지 판 투테> 주역 데뷔

<라보엠>, <돈 조반니>, <팔스타프>, <차르다시 공주>, <니벨룽의 반지>, <발퀴레>, <신데렐라> 등 출연

바르나 주립 오페라,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발레극장 활동



다섯 번째 하녀 Sop. 실비아 테네바 Fünfte Mägde Sylvia Teneva

리우보미르 피프코프 국립음악학교에서 피아노, 클라리넷 전공 후 불가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오페라 가수 분야 전공

<스토 브람바로프>를 비롯한 청소년오페라성악콩쿠르 대회 수상 경력 및 라이나 카바이반스카, 스테프카 에브스타티에바, 안나 토모와-신토우 마스터클래스 참여

아카데미아 키지아나, 오라지오 베키에서 미렐라 파루토 Mirella Parutto, 안토니오 보이어 Antonio Boyer 사사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펜스튜디오 참여



출연진

Cast

오레스트의 선생 Bass 신재영 Der Pfleger des Orest Shin Jaeyoung

부산대학교 성악과 졸업(2023)

부산대학교 오페라 <라 보엠> 콜리네 역 외 <사랑의 묘약>, <카르멘>, <살로메> 단역 및 합창
단원 출연

2023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성악가



클뤼템네스트라의 심복 Sop. 백민아 Die Vertraute Baek Minah

베르디국립음악원, 석사 및 성악마스터과정 졸업(2019)

고양오페라단 <코지판투테> 피오르딜리지역(2022), Ass Opera in Piazza di Parma <운명의
힘> 레오노라역(2019), 베르디국립음악원 <수녀 안젤리카> 안젤리카역(2018) 외 다수 오페라
출연

Concorso internazionale di musica della valtidone 콩쿠르 3위(2016), Concorso musicale
internazionale citta di crispiano 각 1위(2015) 외 다수 국제 콩쿠르 입상

2023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성악가



클뤼템네스트라의 의상담당 시녀 Sop. 김정우 Die Schlepptägerin Kim Jungwoo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2022)

수원오페라단 <리골레토> 체프라노 백작부인 역(2023),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 합창부분(2022),
정동극장 <세비아의 이발사> 로지나역 및 이화여자대학교 <세비아의 결혼> 백작부인 역(2022)

2023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성악가



출연진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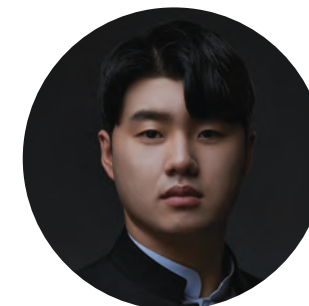
젊은 하인 Ten. 김찬욱 Ein junger Diener Kim Chanuk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영남대학교 75주년 오페라 <라 보엠> 루돌포 역(2022)

한국성악콩쿠르 장려(2022), 전국학생음악콩쿠르 1위(2019), 글로벌전공음악콩쿠르 동상(2019),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콩쿠르 1위(2019)

2023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성악가



늙은 하인 Bass 박준모 Ein alter Diener Park Junmo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2019)

한국피아노재능기부협회 KPCS콩쿠르 3위(2021), 대구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2위(202)

<세비아의 이발사> 돈 바질리오역(2020), 영남대학교 오페라 <사랑의 묘약> 돌카마라역(2019),
<라 보엠> 콜리네역(2018) 출연

2023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성악가



연기자 Actors



박원종 Park Wonjong



박중홍 Park Junghong

출연단체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악보담당 김도연 공연담당 정은영 홍보담당 황재웅

Violin I 김은지(악장) 노선균 장지은 류가현 이소정 이지혜

Violin II 장혜진 이은영 정수현 이소희 김연정 김하은

Violin III 장혜지 김지수 김재은 장유진 김예성 서희래

Viola I 배은진 조민지 조재형 박시영

Viola II 박선영 김예송

Viola III 김효원 이유미

Cello I 강윤선 박소희 김형기 박소현

Cello II 설예은 최재영

Double Bass 함소현 김지정 서한나 하우진

Flute 백선미 류정희 김예원

Oboe 배민주 이지원 정지은(E. Horn)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김보경 윤성훈(B. Clarinet)

Bassoon 조혜연 조윤주 김준민(C. Bsn)

Horn 양삼영 김태우 하강서 최은지

Trumpet 이해연 김지현 전성화 임혜정 권오현 남궁민

Trombone 김진욱 이민정 이상빈(B. Tbn)

Tuba 김성민

Timpani 신현준

Percussion 권혜진 이희정 허동훈

Harp 이은하 임경하

Cast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Opera House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오페라극장
Bulgaria Sofia Opera & Ballet

예술감독	정갑균
무대감독	정진섭
음향감독	차광석
조명감독	문길환
오페라코치	최혜지
통역	최지현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분장디자이너	이혜연
무대크루	구민우 정재훈 소찬호 김형준 홍현기
조명크루	정유진 금명정 황도성 조경빈
음향크루	유동경 남송은
의상크루	윤혜민 김지훈
촬영 및 공연실황 중계	(주)좋은미디어 프로덕션

지휘	에반-알렉시스 크리스트 Evan-Alexis Christ
연출	플라멘 카르탈로프 Plamen Kartaloff
조연출	베라 페트로바 Vera Petrova
프로젝트 매니저	블라디미르 고르차코프 Vladimir Gortchakov
무대디자인	스벤 온케 Sven Jonke
안무가	프레디 프란주티 Fredy Franzutti
의상디자인	레오 쿨라시 Leo Kulash
조명디자인	안드레이 하이딘야크 Andrej Hajdinjak
코레페티토어	요란타 스몰리아노바 Yolanta Smolyanova
무대세트총괄	크리스티안 스토안노프 Kristiyan Stoyanov
무대감독	스테프카 게오르기예바 Stefka Georgieva 테오도르 게오르기예프 Teodor Georgiev
무대크루	오그난 카라벨리옴 Ognyan Karabelyov(Head) 게오르기 아브라모프 Georgi Avramov 발렌틴 게오르기예프 Valentin Georgiev 에밀 스토야노프 Emil Stoyanov 텐요 보보틸로프 Tenyo Bobotilov 류브초 알렉산드로프 Lyubcho Aleksandrov 스트라힐 페트코프 Strahil Petkov
무대건축기술	게오르기 게오르기예프 Georgi Vasilev Georgiev
조명 및 전기기술	에밀 딘코프 Emil Dinkov
의상크루	마리아나 데르멘지예바 Mariana Dermenzhieva
소품크루	로시차 보이노바 Rositsa Voynova
분장크루	이앙카 도이치노바 Ianka Doytchinova



제작진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 관장 정갑균
- 전문위원 김아미
-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 공연기획팀 팀장 정원철
 김영선 류가영 조하나 정유호 한규리 박지윤
 김윤정 오준호
- 교육사업팀 팀장 김민정
 고해리 박형기 최수민 박지에 강지윤
- 무대예술팀 팀장 이효섭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정진섭 박지울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정우식
- 시설관리팀 팀장 강영구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 16기 오페라필 권나영 김명지 김민서A 김민서B 김영은
16th Operaphile 나예빈 남신이 문지영 박서연 박서현 박세연
 박수민 서유정 성민석 손상평 신고운 심규환
 이영인 이영진 전소희 정유리 조선영 주서영
 진동혁 최진원 한규리 한동희 황예빈

- 8기 오페라팬 김나경 김민준 나해지 문보미 박인환 배예하
8th Operafan 이나영 이민경 이상현 이주영 임수진 정연우
 정유경 정유민 홍선윤

Staff

나를 마주하는 내 안의 숲 사유원



054 383 1278
www.sayuwon.com

S A
Y U
W O N



SESHIN
1965 **Buffalo**
프리미엄 수공구, 세신버팔로



부자되는 습관

페이북'

지금 가입하시고 100% 지급되는 웰컴 패키지도 받으세요!

(페이북 신규 회원 가입 기준)

웰컴 패키지 받기

혜택/조건 등 세부내용은
웰컴 패키지 QR코드 촬영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ANDS COFFEE FLAGSHIP STORE
핸즈커피 대구미술관점

HANDS COFFEE

커피로 이어가는 감동, 미술관 옆 핸드커피
핸즈커피 대구미술관점은 브랜드의 철학과 커피에 대한 진심,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전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FABER-CASTELL
since 1761

Faber-Castell
Sustainable

Ecological · Social · Economic

www.faber-castell.co.kr  [fabercastell_kr](https://www.instagram.com/fabercastell_kr)



FLOW Handle



Color Variation



Pearl White / silver

Code Name : 2018년도 출시

GREETING

1973년 창립이후 오직 상호부자재 분야에만 주력해온 (주)에스알은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전문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우수한 제품과 최상의 판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에스알은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품질 향상, 최상의 서비스 실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olor Variation



Black / silver



White / silver

Code Name : TWIST Handle Series



20TH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국립오페라단 제작

G. VERDI MACBETH

맥베스

OCT. 27TH 7:30PM - 28TH 3PM

www.daeguoperahouse.org

주최 |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 대구오페라하우스, (재)국립오페라단 후원 | TC타향, 대구신세계, 비씨카드, 크레딧, 협찬 | 한조커피, 비버키스, (주)에스알

주관 | 대구오페라하우스, KNO 국립

후원 | TC타향,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신세계, 비씨카드, 크레딧, 협찬 | FABER-CASTELL, H HANDS COFFEE, 에스알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image is a dense, abstract composition of thick, expressive brushstrokes. The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various shades of red, from deep, dark maroon and burgundy to bright, almost white highlights. The strokes are layered and overlapping,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Some strokes are horizontal, while others are diagonal or vertical, forming a complex, woven texture. The overall effect is one of raw energy and artistic spontaneity.

20TH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www.daeguoperahouse.org